



인문학의 향기가 흐르는 곳 '카페 필로소피아'에 오세요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 전남여고 정문 앞에 새 터전 서양철학사 산책·서음회 강좌 시민들 책 읽고 음악 듣는 공간 내년 20주년엔 유럽행 계획도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광주 시 동구 학동에 '카페 필로소피아'를 연 게 지난 1996년이였다. 카페라는 이름을 단 건 편안함과 안락함, 그 속에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싶어 서였다.

성 교수는 전남대 인문대 학장 시절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철학 특강 시리즈' 등을 진행했었다.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도 철학과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에게 강의의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다.

'카페 필로소피아'는 고전음악 감상실 베토벤, 전남대 후문 앞 건물 공부방, 누리재단 사무실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꾸준히 운영돼 왔다.

성 교수가 최근 광주시 동구 장동 전남여고 정문 앞에 새로운 동지를 마련했다. 내년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불박이 공간이다.

1층에 자리한 카페 필로소피아는 소박하다. 올빼미 그림과 '인문학 동지'라는 글이 쓰인 작은 간판이 걸려 있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철학 관련 책들이 빼곡이 들어찬 책장들이 눈에 띈다. 가운데는 함께 책을 읽는 긴 책상이 놓여 있고 벽면에는 니체의 초상화 등이 걸려 있다. 오디오 시설도 갖춰져 있다. 누구나 편하게 들어서 철학책도 꺼내 읽고, 음악도 들으면 하는 게 성 교수의 생각이다.

성 교수는 퇴임 후 국내 유명 철학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인문학 Sailing', 니체의 삶과 철학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작곡한 음악을 듣는 '니체쇼'를 열기도 했다. 13회까지 진행했던 '인문학 Sailing'은 오는 10월 다시 재개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철학자를 초청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현재는 두 개의 철학 강좌가 진행중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서양철학사 산책'을,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함께 읽는다. '서음회(書聲會)' 회원 10여명과 3년 전부터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모여 문학작품을 읽는다. 새롭게 철학 공부를 하고싶은 이들이 원



성진기 교수가 전남여고 앞에 문을 연 카페 필로소피아는 다양한 철학 강좌가 열리는 공간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면 편한 시간에 함께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음악과 철학을 접목시키는 강좌도 진행해 보려한다. 모든 음악의 탄생 배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성격을 드러내는 음악을 듣고 철학적 특질을 서로 이야기하는 강좌로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 등이 대상이다. 또 철학과 미술, 특히 그림 속에 숨은 다양한 죽음의 코드를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작업도 시도할 계획이다.

내년 20주년 행사도 준비중이다. 우선 '철학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유럽 여행'을 진행한다. 니체 등 주요 철학자의 활동 무대를 찾아 그들의 사유의 세계를 보다 깊



카페 필로소피아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갖추고 있다.

이 이해해 보는 프로젝트다. 내년 여름 예정된 여행은 독일 바이마르의 니체 연구소, 괴테 정원, 하이델베르크의 하이데거 생가와 무덤, 현상학 연구소, 라이프치히의 칼 마르크스 대학, 스위스 니체하우스, 프라하 카프카 기념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4월에는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강좌 등이 어우러진 기념행사도 연다.

성 교수는 '카페 필로소피아'를 인문학 향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작품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다

허달재·진시영 참여



허달재 작가 진시영 작가

작가와 시민들이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15일~11월13일) 작품을 함께 만든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추진단은 25일 한국화가 허달재 작가와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플라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내가 생각하는 꽃, 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이 보내온 꽃 사진을 미디어아트로 제작하는 작업이다.

꽃 사진은 '2015년'의 '2015'와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일인 10월15일에서 '1015'를 더해 '3030'개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진 작가는 허 작가의 매화 작품에 감명받아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진 작가는 허 작가 그린 매화의 가지 위에 시민이 보내온 꽃 사진을 결합해 미디어아트 작품을 완성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찍은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이 65인치짜리 대형 화면에 펼

쳐지게 된다.

이 작품은 '디지털과 일상의 만남'전에 선보이며, 6m에 달하는 허 작가의 매화 그림과 함께 전시된다.

진 작가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보내온 꽃 사진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작업으로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며 "한국 전통의 미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세련된 영상미로 지역 산업과 문화를 재해석한 조화로우움을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21일까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www.gdb.or.kr)를 통해 꽃 사진을 접수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승실대, 제1회 김현승 시문학상 공모

대학생 대상 31일~9월 11일

승실대는 광주 출신으로 평양승실전문문과 학생이자 서울 승실대 문리대 교수였던 다형(茶淸) 김현승 시인의 민족의식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1회 김현승 시문학상을 신설하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31일부터 9월11일까지 열린다. 시 5편을 자유주제로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 9월말까지 심사를 통해 당선자 1명과 기작 2명을 선발하고 각각 상금 150만원, 70만원을 수여한다. 김현승(1913~1975) 시인은 1934년 '솔솔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과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시다'를 동아일보에 발표하며 등단했다. 대표작으로는 '가을의 기도'와 '건고한 고독' 등이 있다. /연합뉴스

광주음악창작소 '2015 음악산업 발전 포럼'

오늘 시작공원에서

광주음악창작소는 26일 오후 2시 광주 시작공원에 위치한 광주음악창작소 내 레드피크씨어터(Redpeak Theater)에서 '2015 광주 음악 산업 발전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음악산업의 저변 확대 및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음악창작소의 역할과 운영방향성을 살펴보고,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지역 음악산업·축제의 정책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음악산업학회 구문모 회장이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아 2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미래블루직 이창희 대표가 '지역 음악산업 거점으로서 음악창작소의 역할과 비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광주, 마포, 부산, 대구 지역 각 음악창작소 관계자 4명이 패널로 참석해 지역 음악창작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제2세션에서는 월드 DJ 페스티벌류재현 총감독이 '광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음악산업 활성화 그리고 음악축제의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문의 062-654-362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린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